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4월 3일(목) 제 3068호

전북 대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주와 그 인근 지역’ 대광법 개정안 수혜대상 포함
이춘석 의원 “현행 대광법 개정해 전북차별 해소해야”



이춘석 의원

전북을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대광법 개정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음 수도권만 관할하던 이 법은 2000년부터 전라북도를 제외하여 전국을 5개 광역권으로 묶고 ‘대도시권’이라고 칭하며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왔다”라며 “전국에서 단 한 지역만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특별법의 가면’을 쓴 일반법”이라고 하며 찬성 토론에 나섰다. 일반법은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과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특별법은 특정 대상 지역을 특정하거나 특정 사람을 지정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대광법은 전북을 제외한 15개의 광역단체를 수혜대상으로 함으로써 이름은 특별법이지만 사실상 일반법 형태로 운영돼왔다. 이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일부 언론에서 대광법 개정안이 전주에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지난 25년간 전라북도가 받아온 차별을 치유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도시권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대도시권에 포함됨으로써 전주시와 그 인근 지역도 대광법 수혜대상이 된다. 한편, 이 의원은 대광법이 통과한 이후 사실상 법안 통과와 마지막 관문이 라고도 할 수 있는 법사위를 통과시키

기 위해 지극정성 공을 들여왔다. 탄핵 소추위원단으로 함께 활동했던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 박법계 간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이들이 전북 출신 이성윤·박희승 의원과 함께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광법 개정안은 3월 26일 법사위를 통과한 데 이어 4월 2일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전북의 숙원인 대광법 개정을 위해 오랜 세월 뜻을 모아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전북이 받아온 차별에 함께 분노하고, 법안 통과를 도와주신 국토위·법사위 위원들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께도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목 기자



완주-전주 통합 시대위 검토안 의결 놓고 입장차

전북도·전주시 “통합 당위성 인정” 환영 분위기
완주군·군의회 “공감대 전제 조건 일방적 안돼”



유희태 군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완주-전주 통합건의 검토안을 조건부로 의결한 것을 놓고 전북자치도·전주시와 완주군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8면> 먼저 지방시대위는 지난 1일 본위원회를 열고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가 검토안을 금명간 행정안전부로 보내면 행안부는 관련법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인지를 놓고 선택하게 된다.

이번 시대위의 의결을 놓고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곧바로 환영의 입장을 낸 반면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는 공감대 전제 조건에 따라 일방적 추진은 절대 안 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냈다. 우선 시대위의 검토안을 보면 △인구 △생태환경 △지리적 특성 △발전 가능성 △지리적·문화적 동질성 △행정 효과 등 5개분야에 대한 타당성을 담았다. 특히 거점도시 기능을 위한 인구규모 확보가 가능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 기반 강화 및 지방소멸 위기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통합을 통해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에 따른 주민편익 증대에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대위는 과거 3차례의 통합 시도 무산과 완주군내 반대여론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 의사확인도 공감대 형성 노

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또한 행정·재정·산업·지역개발 관련 인센티브 등 통합촉진을 위한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책 마련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2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통합으로 인해 75만 대도시 구성이 형성되면 거점도시 기능 강화에 따라 인구유출 완화와 생활권 및 행정구역 일치로 주민편익이 증대되며 산업 시너지 창출 및 지역발전 효과도 거둘수 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시대위는 전북 최대 도시 전주시와 유일한 인구성장 지역 완주군 모두 성장거점의 역할이 부족한 현재, 양지역 모두 장기적으로 인구감소가 예상되어 지속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전주시는 이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본위원회 최종 의결을 통해 완주와 전주의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는 “시대위의 의결을 존중하며 함께 거론된 통합 추진 과정의 고려사항도 유념해 통합관련한 정확한

정보전달 및 지역주민 의사 확인 등 갈등 완화를 위한 주민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유희태 완주군수는 “과거 세 차례의 통합 시도 무산과 완주군 내 반대 여론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 의사 확인과 공감대 형성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상생통합의 원칙에 기반한 상호 상조협, 통합 지자체 내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대위 결정에 유 군수는 “그동안 행정통합은 군민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며 “시대위도 주민들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가 우선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군민들의 격한 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행안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통합 철회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군의회도 이날 일방적 추진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근 기자 /완주=김명곤 기자

범농협 영농지원 발대식 2일 김제 벽골제 공원에서 열린 '2025년 범농협 영농지원 발대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정성주 김제시장 및 전국 농협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4면) <사진=전북자치도>

새만금3·7공구 이달부터 산업용지 27만평 분양

이달부터 본격 분양 개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3·7공구 산업용지에 대한 지반 안정화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분양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산업용지 분양을 통해 투자 기업들이 공장 설계를 위한 측량 등 사전 준비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3·7공구의 초기 분양은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

양기관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당초 2025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착공 시점을 1년 이상 앞당겨 2023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했다. 또 분기별로 공정관리 회의를 열어 체계적인 진행 관리를 해왔으며, 그 결과 3공구는 2024년 6월, 7공구는 2024년 8월에 산업용지 매립을 완료하게 되었다. 8공구는 수심이 깊은 공유수면 구간으로 매립에 필요한 대량의 매립토 확보가 관건이었지만, 산업용지 구역을 우선 매립하는 전략을 통해 2025년 6월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올해 12월부터 분양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팀별 벤치마킹 민생편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 시즌4서 민생과제 154건·혁신 17건 포함

전북자치도는 도민 생활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도정의 과감한 혁신을 이어나간다.

도는 2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주재로 ‘팀별 벤치마킹 민생편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편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과제를 주제로 설정해 실효성 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팀별 벤치마킹은 김관영호가 자랑하는 대표 혁신 사례로, 기존의 획일적인 업무 보고 방식을 벗어나 타 시도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도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지난 벤치마킹 시즌1, 2를 통해 총 591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다수 과제를 도정에 반영해 변화와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

또 지난해 시즌3에서는 ‘일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출동지령시스템 모바일 전송,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 개선’ 등 291건 과제가 발굴됐다.

이를 통해 관행적·비효율적 업무를 과감히 개선해 조직의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바 있다.

이번 시즌4을 통해 총 171건 벤치마킹 프로젝트가 발굴됐으며, 이 중 민생과제 154

건과 혁신과제 17건이 포함됐다.

보고회는 ‘복지여성보건국, 환경산림국’ 10개 팀을 시작으로 오는 4월 중순까지 16개 실·국이 순차적으로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시즌4에서는 직원의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제 발굴 방식에 자율성을 부여했으며, 보고 방식도 각 과별 대표 과제 1건만 보고로 개선해 효율성을 높였다.

보고회에서 복지여성보건국과 환경산림국은 ‘경력단절여성, 다시 꿈 이음 사업,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지원, 찾아가는 이동형 수소충전소 도입’ 등 도민 생활에 밀접한 장의적이고 실효성 높은 과제들이 다수 제안됐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벤치마킹 보고를 들 어보니 도민 삶에 바로 닿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됐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민생이 어려운 지금, 즉각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시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주문하고 “예산 반영과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도민 민생을 위해 흔들림 없이 혁신의 길로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 사 고

새로운 도전에 함께 할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타임스가 취재 경력 기자를 모집합니다. 전북타임스는 21세기 전북 언론문화를 창달하고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타임스는 새로운 시대와 전기를 마련할 역량있고 패기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 모집내용

모집부문	인원	응시자격
경력기자(취재 부문)	○명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원서접수 : 2025년 3월 31일(월)~4월 4일(금)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 인터넷 접수 : 이메일(jbn8800@daum.net) 송부
- 기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1차 합격자는 개별통보
- 자세한 내용은 본사 (063) 282-9601 로 문의

윤준병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무장병원 혐의무죄시 지급보류처분 취소규정 마련 “불법사무장병원 엄정 처벌”

지난해 6월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 혐의로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의료급여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반영해 전북자치도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무장병원 혐의가 무죄로 판결될 경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행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일컬어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지목되면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보류 처분을 해 의료급여



윤준병 의원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보류처분은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결과가 확인되는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한 명시적 규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작년 6월 헌법재판소 역시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해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는 점 △처분 이후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의료급여기관이 혐의를 벗어내더라도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에 대한 규율이 없는 점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급보류 처분 후 병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병원 무죄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안을 발의하고, ‘사무장병원에는 엄정한 처벌·무죄 판결에는 신속한 권리회복’의 원칙 아래 제도 개선에 앞장선 결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적정한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에 대한 규율이 없는 점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급보류 처분 후 병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병원 무죄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사무장병원에는 엄정한 처벌·무죄 판결에는 신속한 권리회복’의 원칙 아래 제도 개선에 앞장선 결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며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국민과 의료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가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道·전기안전공사·한전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 총력

14개 시군 2,253세대 차단기 등 전기설비 개선 ‘입체적 보호망’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2025년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전기 안전 강화에 나선다.

이 사업은 전북자치도가 지난 2년간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와 협력해 추진해 온 전기재해 예방사업을 한층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는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까지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세대별 인입선 교체 및 전기설비 안전 강

화를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사업에 총 2억 원을 투입해 14개 시군 2,253세대를 대상으로 차단기·접지 설치, 종합 전기안전진단, 세대별 인입선 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최동환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장, 염원섭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 등이 참석해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안전취약계층 가구의 전기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업계획 수립·예산 지원·사업대상자 선정을 맡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는 전기안전진단 및 사업위탁 운영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는 인입선 교체 및 기술적 협력을 담당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전기설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 안전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바른 전기 사용법과 감전·화재 예방법을 알리고, 생활속 실천을 독려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전기재해 예방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도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트럼프 관세 대응…자동차 부품 기업 현장 방문

美 정부, 25% 관세 부과 해외판로 개척·다변화 연구 개발 지원 확대 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미국 정부의 수입산 자동차(경량 트럭 포함) 및 주요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표와 관련해 2일부터 순차적으로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속에서 도내 대미(對美)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자치도는 먼저 정읍 소재 전장부품 전문기업 ‘아진전자부품’에서 간담회를 열고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들의 우려와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한 25% 관세가 5월 3일 이전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북 내 대미 수출 부품기업(29개사, 연간 수출액 9,000만 달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조치로 일부 기업은 수출 물량



<사진=전북도>

감소, 생산 원가 상승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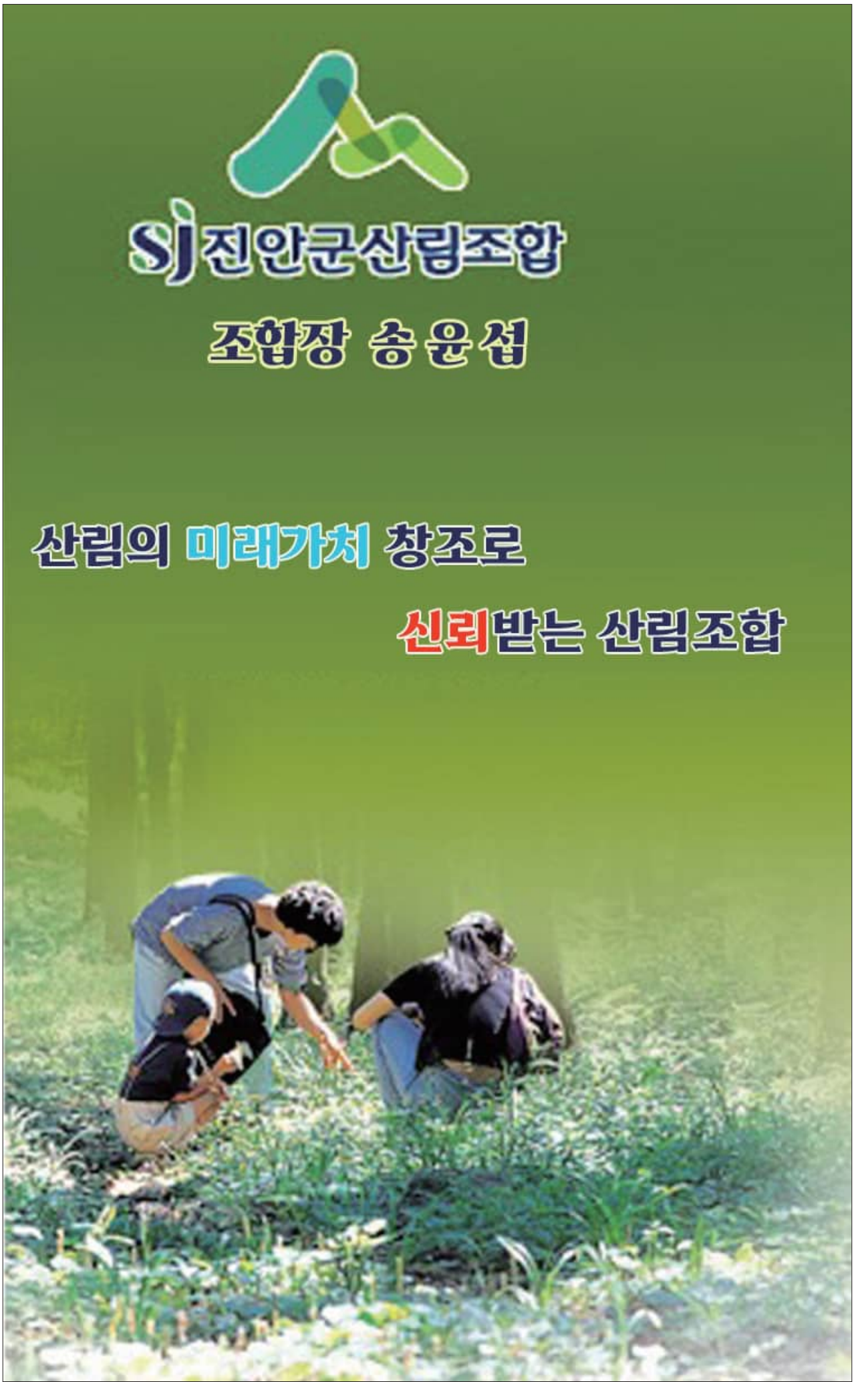
특히, 대미 수출 감소에 대비해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는 4월 발표 예정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산업 비상대책 방안’과

연계해 도내 기업들이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도내 기업들이 변화하는 국제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대학 통해 발전 패러다임 대전환

이달 말 최종 선정·협약 ‘2025 라이즈 사업’ 본격화 산업이 혁신되는 전북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본격 가동한다.

전북도는 지난달 7일 2025년 라이즈 사업을 공고하고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공모는 4대 프로젝트 아래 12개 단위 과제가 대상이며 각 대학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과제를 신청하도록 했다.

서면평가 및 대면 Q&A를 거친 뒤 4월 말 최종 선정·협약을 통해 사업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2025년 전북 라이즈(RISE) 총 예산은 1,301억원(국비1,076억원, 도비225억원)이며, 이 중 글로벌대학30 사업비 420억원을 제외한 886억원이 이번 공모로 대학에 배분된다.

전북도는 지역산업성장, 청년일자리, 평생학습, 지역정주여건 개선 등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4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생명전환산업혁신(JB-SPARK)은 전북의 8대 전략산업(농생명, 의생명, 청정에너지, 첨단소재, 모빌리티, 디지털, 문화관광, 생명서비스·웰니스)에 특화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중심이 되는 융합형 R&D 허브를 구축한다. RISE 연구클러스터를 통해 기업·연구기관과 연

계한 기술개발도 강화한다.

지역주력산업성장(JB-ROOT)는 주력 산업에 맞는 현장인재를 양성하고,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창업과 글로벌 확장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평생교육 가치확산(JB-EverLearn)은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체계를 마련하고 ‘J 커뮤니티 캠퍼스’ 설치, 평생직업교육 거점 구축을 통해 전 생애 주기의 학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중장년·퇴직자 대상 재취업 교육도 강화된다. 도내 평생학습 참여율을 확대해 비전공자, 경력 단절자, 중장년층, 퇴직자 등 전 생애 주기별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동행협력 지역발전(JB-TEAM)은 대학

과 지역이 ‘한 팀’이 돼 인구문제, 지역상권, 교육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늘봄학교, 지역 리빙랩, 고교연계 이음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의 유기적 연결망을 구축한다.

전북도는 RISE 사업을 통해 현재 26.6% 수준인 도내 대학 졸업자의 정주취업률을 2029년까지 29%로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성장으로 설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라이즈(RISE)는 대학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며 “지역 산업과 인재양성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청년이 머무는 전북, 산업이 혁신되는 전북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주시>

전주시,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운영

올해 10개 도서관서 영유아 대상 책 놀이 프로그램 모집·운영

책의 도시 전주시가 영유아기 때부터 부모와 함께 독서 습관을 기르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도 책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시는 오는 5월 7일부터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은 책 꾸러미 배부와 책 놀이, 책 읽어주기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시는 현재 참여 가족을 모집하고 있다.

올해는 각 도서관마다 자원활동가와 함께 생후 6개월부터 24개월 사이의 영·유아 및 부모 10가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주말의 경우 생후 25개월부터 48개월 사이의 영·

유아 15명을 모집해 책 놀이와 책 읽어주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프로그램은 오는 5월 7일부터 꽃심·송천 도서관에서 생후 6~12개월, 건지·삼천도서관에서 생후 13~24개월 각각 10가족씩을 대상으로 총 8주간 운영된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금암·효자동서관에서 생후 6~12개월, 서신·쪽구름도서관에서 생후 13~24개월 각각 10가족을 대상으로 총 8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또한 평화도서관과 인후도서관에서는 생후 25~48개월 각각 15명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주말 가족과 함께하는 책 놀이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영유아와 부모들이 책으로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 상생발전사업 최종 확정

전체회의 통해 107개 심의 완주군민협에 전달 예정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위원장 박진상, 이하 위원회)는 2일 그동안 완주군민협의회에서 제안한 완주지역에 통합 시청사·시의회청사 건립,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 107개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최종 심의, 확정하고 이를 완주군민협의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박진상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을 비롯해 전주시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과장, 전주·완주상생 TF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약 두 달간 총 14차례의 분과회의(7개분과 2회) 및 2차례의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완주군민협의회가 제안한 12개 분야 107개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검토해온 사업에 대해 심의를 마쳤다.

가결된 주요 상생발전방안에는 앞서

지난달 10일 발표된 △완주지역에 통합 시청사·시의회청사 건립 △행정복합타운 조성 △주민 동의 없는 혐오·기피시설 이전 불가 △완주-전주간 주요도로 확장 △군 지역 공공택지 기존 군민에게 우선청약권 부여 △농업예산 연평균 증가율 이상 증액 및 10년간 1000억 규모의 농업발전기금 조성 △통합시 보건소의 분소기능 완주지역 배치 △보건의료·진료소 유지 및 확대 △봉동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주에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 및 대기업 유치 등 통합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특히 위원회는 완주군에서 제안한 방안을 발전시켜 △초중학교 급식에 친환경 지역농산물(로컬푸드) 활용 확대 △양 시군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처우 상향평준화 등 양 시·군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추가 발굴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완주군민협의회의와 논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으로, 향후 통합과 관련된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박진상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인정 결과와 관련해 그간 추진된 지역사회의 통합 논의와 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군민협의회의와



<사진=전주시>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는 완주지역에 통합 시청사·시의회청사 건립 등 107개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최종 심의, 확정하고 이를 완주군민협의회의에 전달하기로 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인정 결과와 관련해 그간 추진된 지역사회의 통합 논의와 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군민협의회의와

의 논의를 통해 양 시·군 주민들의 마음을 녹이고 통합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신명순 대한어머니회 전북연합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추가 선출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1250명 대상 ‘C형간염 무료 항체검사’

전북자치도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올해 전주시민 1250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무료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는 신속진단키트를 이용한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며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 검사실에 내방 후 검사 가능하다.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돼 이에 대응하는

신체 면역 반응에 의해 간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성적인 접촉이나 수혈,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등에 의해 감염될 수 있다.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급성간염의 54~86%가 만성간염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C형간염 무료 항체검사는 만 19세 이상

의 전주시민 1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보건소는 △C형간염 확진자 가족 △과거 혈액제제 수혈 및 주사기를 공유해 사용한 경우 △C형간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50대 이상 검사 희망자를 우선순위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C형간염 항체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군산해경, 체장미달 꽃게 판매 업체 적발

꽃게잡이 조업이 재개됐지만 아직 성어가 되지 못한 꽃게가 포획되고 있어 해경이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일 오전 4시 50분께 체장미달 꽃게 2,250kg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 소지한 군산시 A수산 대표 B씨(62)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산물은 포획, 채취가 가능한 크기와 시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꽃게는 두홍갑장(등갑길, 일명 게뚜껑)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길이가 6.5cm 이상만 포획이 가능하다.

이는 무분별한 조업을 막아 수산동식물을 보호하고 향후 산란기에 맞춰 해양생태계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A수산에서 판매하려던 꽃게는 그 길이가 채 4cm도 안되는 것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절기 잠시 조업을 쉬었던 꽃게잡이 어선들이 지난 3월초부터 조업 재개에 나서면서 일부 어선들이 아직 크지 못한 꽃게를 무분별하게 포획하고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군산해경은 해상에서 어선 검문을 강화해 체장미달 어획물 조업여부를 살피는 한편, 야간에 은밀하게 유통되는 불법 어획물에 대한 감시활동도 늘릴 방침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작은 욕심에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바다자원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겠다”며 “건전한 조업질서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살펴볼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진=전주시>

전주덕진소방서 유선도 소방장, KBS119 수상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유선도 소방장이 다년간의 구급활동 및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뛰어난 공적을 인정받아 제30회 KBS119 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일 밝혔다.

유 소방장은 2011년 전주덕진소방서에서 구급대원으로 첫발을 내딛은 후, 구급현장의 최전선에서 헌신적으로 업무무를 수행하며 공적을 인정받았다.

현재 그는 소방서 구급담당자로서 구급대 관리 및 업무 기획에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 그는 13년 9개월의 근무기간 중 총 2,843건의 구급출동을 수행하며 1,720건의 환자를 이송하는 등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헌신해왔다.

유 소방장은 구급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19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 및 신규규범 구급대원 실무적응교육 강사로 여러 차례 강의를 진행했다.

2023년과 2024년 Pre-KTAS 교육 강사로도 활동했으며, 소방청 평가 긴급구조종합훈련 구급대응 분야 평가관으로 참석하며 실전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

유 소방장은 소방청장 표창 등을 수상했으며, 구급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헌신적인 활동이 인정돼 대한민국 최고의 소방인에게 수여되는 KBS119 본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설공단, 상반기 정규직 21명 신규 채용

행정·기술직 등 임용 15~21일 응시원서 접수

전북자치도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은 2025년 상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 총 21명을 신규 채용한다.

전형과정은 서류심사와 인성 검사 및 필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6월 9일 임용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이며,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0일 필기시험을 진행한다.

채용인원은 직종별로 일반직이 △행정 5명, 기술직이 △기계 3명, 운영직이 △안전관리자 1명 △광고굴 관리 1명 △운영원 1명 △운전원 10명으로 총 21명이다.

이번 채용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진=전주시>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응시원서는 공단 채용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마을버스 운전원은 1년 이상의 버스 운행 경력 또는 버스 운전자 양성기관 교육과정 이수자 등의 자격요건이 있어야 한다.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

하고 있으며, 2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이연상 이사장은 “공단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나갈 열정 있고 창의적인 지역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며 “공단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상생의 공익적 가치를 두루 검토해 앞으로 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반려견 2천마리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4월 한 달간 반려견 2천마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광견병’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치사율이 높아 1년에 한 번씩 보강접종이 권장된다.

접종대상은 동물등록을 마친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완료 후 접종할 수 있다.

접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력 동물병원은 38곳으로, 전주시 누리집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희망 시 가까운 동물병원을 선택해 방문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준비된 백신은 2천마리 분량이며, 사업이 초기에 종료될 수 있다.

광견병 예방접종비는 평소 2만 원 내외이지만 사업 기간 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약 5천원 정도의 접종시설비만 부담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반려견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재근 기자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핼코 전주사무소 개소

2조 달러 관리 자산운용사
한국 사무소 첫번째 개소
국민연금 파트너십 강화

국민연금 해외채권 및 해외부동산 위탁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채권 전문 자산운용사 핼코(PIMCO)가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핼코 사무실 개소는 2일 전주시 만성동에서 진행됐다. 핼코 한국 사무소 개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핼코 아시아 태평양 대표인 알렉 커스만(Alec Kersman), 박정 한국 대표 등이 참석했다. 54년의 역사를 가진 핼코는 2024년 말 기준 약 2조 달러(약 2,900조 원)의



국민연금 해외채권 및 해외부동산 위탁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채권 전문 자산운용사 핼코(PIMCO)가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자산을 관리하며 3,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24개의 글로벌 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공모 및 사모채권 전문 액티브 자산운용사이다. 2005년부터 핼코는 국민연금의 투자자산을 위탁 운용하고 있다. 핼코는 전주 연락사무소를 통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한국 고객과의 파트너십

을 강화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시장 통찰력 및 전략적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글로벌 채권운용사 핼코가 한국에 첫 사무소를 낸 곳이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주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는 20년 가까이 된 국민연금과 핼코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증거이자 향후 더 빈번한 협업 기회 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과의 협업을 위해 전주에 거점을 마련한 글로벌 수탁은행 지점은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 BNY멜론은행이며, 자산운용사 연락사무소는 프랭클린템플턴, BNY멜론 자산운용그룹, 블랙스톤, 하인즈, 티시먼 스파이더 등 총 7개 사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나선다

‘혁신성장 R&D+ 사업’ 35개사 선정…총 48억 규모
기업 당 최대 2억 지원…‘글로벌대학 협력형’ 신설

전북자치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높이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 혁신성장 R&D+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중소기업 혁신 성장과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국가 전략기술 및 전북의 주력 산업 분야와 연계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올해 총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

해 도내 중소기업 35개사를 선정하고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협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사업 유형은 △자유공모형(최대 1억

원) △구매조건부 및 투자유치형(각 최대 1.3억 원) △글로벌대학 협력형(최대 2억 원) 등 총 4가지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글로벌대학 협력형’은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가 함께 기술개발에 나서는 형태로, 전북대학교가 참여기관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도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R&D 경험이 부족한 기업부터 다수 과제를 수행한 기업까지 수준별 교육을 제공해, 향후 정부 R&D 과제 참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 7일부터 4월 23일 16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R&D 종합정보시스템(<https://md.jbt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 안내는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jbt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길 전북자치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내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하고 실질적인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농협중앙회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 개최

연 250만 명 영농인력 지원
비료 살포기·영농물품 전달
도시농협 통한 농인력 모집

농협중앙회 강동호 회장은 ‘2025년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을 알렸다. ‘2025년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은 2일 김제시 벽골제공원에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 자리에는 강동호 농협중앙회장, 범농협 임직원,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원택 국회의원,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회원, 전북대학교 학생 등이 대거 참석했다. ‘2025년 범농협 영농지원 참석자들은 농촌일손돕기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뜻을 모았다.



농협중앙회는 2일 김제시 벽골제공원에서 ‘2025년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을 알렸다. <사진=전북자치도>

농협중앙회는 김제 지역 농업인을 위해 100여대의 비료 살포기 등과 함께 영농물품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농가를 찾아 하우스 감자 수확, 땅콩 심기 등 영농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전개했다. 농협은 2025년 농촌인력증가를 통해 250만 명의 영농인력을 농가에 공급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도시농협을 통한 농작업 참여자 모집으로 농촌인력증가센터 영

농인력 풀을 확대하고, 법무부 보라미 봉사단 영농인력 활용사업 추진, ‘영농인력지원 데이터분석 시스템’ 운영으로 인력 수급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협 중심의 농촌일손돕기 추진체계 강화,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 공급 등 농촌의 구조적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동호 회장은 “한해 농사 시작을 알리고 농촌일손돕기 범국민적 참여를 확산하고자 2025년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을 개최했다”며 “농협은 인건비·영농자재비 상승 및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농업인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임직원 일손돕기에 적극 동참한다. /김영태 기자

바이오진흥원, ‘지역가공먹거리 DB 구축 및 교류회’ 첫 발

공공급식·지역 업체 간 교류
안정적 공급·소비 체계 구축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지역가공먹거리 DB 구축 및 교류회’가 올해 첫 발을 내딛었다. 2일 남원시 농업인상생플랫폼(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교류회는 단순히 제품을 전시하거나 평가하는 자리를 넘어 학교급식 현장과 지역 가공업체의 뜻깊은 만남의 장으로 진행됐다. 교류회에는 매일 아이들의 식판을 책임지는 학교 영양교사와 지역의 농산물로 가공품을 만드는 가공업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지역가공먹거리 DB 구축 및 교류회’가 올해 첫 발을 내딛었다. <사진=바이오진흥원>

이날 지역산 가공식품에 대한 제품 특징을 설명하고 공급기준과 현장의 애로사항 공유 등 서로의 공급증을 풀어가

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올해 2025년에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5회의 교류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160여개 지역 가공업체의 정보를 수집해 학교·공공급식용 DB도 함께 구축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학교·공공급식기관에 제공돼 지역 가공식품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바이오진흥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실행조직으로, 지역산 가공식품의 급식 연계를 위한 조사와 교류회 기획·운영을 맡고 있다. 특히 교류회는 지역 가공식품을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식탁을 책임지는 동료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다음 교류회는 오는 4월 8일(화) 군산 스테이호텔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최우수 국민제안’ 선정

최우수 제안 5건 선정
발굴 의견 정책 반영
맞춤형 서비스 강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이하 공단)은 2024년에 접수한 ‘국민제안’ 163건 중 5건을 ‘최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단은 한 해 동안 접수한 제안 중 국민연금 제도와 서비스 개선에 기여가 큰 제안을 최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 중 엄OO 씨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해 달라고 의견을 냈는데, 나의 제안이 이렇게 빨리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공단이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모습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공단은 엄OO 씨가 작년 2월 소득활동으로 인해 감액되는 노령연금액을 수급자가 직접 누리집에서 계

산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수용해 작년 3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우수 국민제안을 비롯해 그간 개선 내용들은 국민연금 누리집 ‘국민의 소리 반영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제안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국민연금 누리집(www.nps.or.kr)-소통과 참여-국민제안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고객센터-국민제안 △팩스(063-900-3212)로 상시 참여할 수 있다. 공단은 올해도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국민제안 제도 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프리미엄 한우·돈육 할인 행사와 함께 할인 쿠폰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롯데백화점 전주점>

전주롯데백화점, 프리미엄 한우 주말 반값 한정 판매

‘All About Meat Fair’ 행사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지역 미식가들을 위한 ‘All About Meat Fair’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All About Meat Fair’ 행사는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7일동안 롯데백화점 전주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동양플러스, 백만축산’ 등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가 참여해 최상급 품질의 한우를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한우 정품목 50% 행사와 한우 등심, 채끝, 차돌박이등 인기 부위를 일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또 제이애플드 돈육 정품목 40% 할인 행사와 함께 삼겹살, 목심 등이 일별 초특가로 고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 품목으로는 동양플러스 1++등급 한우 등심(100g/20kg) 8,900원, 백만축산 1+등급 한우 채끝(250g/1팩/100팩) 19,000원, 제이애플드 프리미엄 암

돼지 삼겹살(100g/20kg) 2,340원으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한정 판매한다. 특히 48년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압구정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외식의 명가 삼원가는 전통 맛집의 양념 왕갈비, 한우불고기등을 만나볼 수 있다. 다년간 노하우로 특화된 부산물 전문 브랜드인 소개비의 밀키트 제품도 참여하며, 디에이치식품의 한방꿀발, 바베큐쿠팡, 너비아니, 전주의 대표 브랜드 이고장식품의 다양한 국거리 간편식도 만나볼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선착순 500명에게 3만 원 이상 구매시 5천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쿠폰은 롯데백화점 앱(APP)에서 선착순 내려받아 즉시 사용 가능하고, 동양플러스의 한우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100명 한정 고객께 의상쌀(500g) 증정 행사 및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김영태 기자

한국발명진흥회 전북, 지식재산 재능나눔 사업 추진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지부장 윤정호)는 전북지역 지식재산 분야 재능나눔 확산 및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재능나눔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식재산 재능나눔사업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지식재산 활동이 어려운 소상공인, 소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 등에게 지식재산 관련 전문지식 및 재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능 기부자는 재능을 무상으로 기부하고, 재능 수혜자는 재능나눔 이후 나눔문화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 지역 내 나눔문화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전북지식재산센터)는 지난 10년간 총 86건의 지식재산 재능나눔을 추진했다. 분야별로는 △지식재산상담 26건 △

선행기술조사 15건 △지식재산교육 12건 △브랜드개발 15건 △디자인개발 10건 △선행상표조사 7건 △특허출원 1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지식재산상담 3건 △선행기술조사 2건 △브랜드개발 2건 △디자인개발 1건 △지식재산교육 1건 등 총 9건의 지식재산 재능나눔을 가졌다. 윤정호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장은 “지식재산 관련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재능 기부자로, 기부가 필요한 분들은 재능 수혜자로 참여할 수 있다”며 “지역 내 지식재산 관련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보다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패럴림픽 개최계획 수립 본격 착수

국제 외교·국내 협력 구체화
국제올림픽위원회 본부 방문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전북특별자치도가 패럴림픽 개최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도는 지난달 28일, ‘2036 전주 하계패럴림픽대회 개최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독립된 국제 스포츠 축제로서의 위상을 갖추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섰다. 하계 패럴림픽 계획 수립 방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포용을 랍픽 실현이 목표다.

또 전북도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무장애 환경 구축, 대회 이후 지속 가능한 레거시 창출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하나의 유기적 체계로 통합 운영해 효율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7일 서울특별시와의 면담을 통해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전북은 ‘88 서울 올림픽’의 레거시(유산)를 활용해 올림픽 개최 경험을 보유

한 국가라는 점을 IOC에 강조하고, 개최 비용은 줄여 유치 가능성과 대회 완성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또 서울시에서는 2032 하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얻은 실무적 경험과 다양한 노하우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경기장 시설 사용을 비롯해 향후 전북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전북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은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가야할 도전인 만큼, 서울시와의 협력은 대한민국 전체의 역량을 모으는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쟁을 넘어 협력의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전북자치도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위한 국제 외교 활동에 김도지사는 4월 8일 스위스(현지시간) 로잔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를 방문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전북 올림픽 유치 비전과 전략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패럴림픽 개최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면담은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이후 국제사회에 유치 의지를 공식 표명하는 첫 자리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 김도지사는 IOC의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성, 유산(Legacy), 사회적 연대가 반영된 전북 유치 전략을 강조하며, 기존 인프라 활용, 지역 간 협력 모델, RE100 기반 탄소중립 대회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도지사는 전주의 문화적 매력과 전북이 보유한 K-컬처 경쟁력도 소개하고, 올림픽 이후 유산의 지속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밝힐 예정이다.

이 외 IOC 올림픽게임부서의 미래를 랍픽게임유치팀과의 별도 만남을 통해 IOC의 평가 기준을 파악하고 실질적 국제 소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서거석 교육감, 불법과의 근절 대책 논의

학원총연합회 전북지회 간담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일 학원총연합회 전북지회(지회장 손경호)와 불법과의 근절 대책 등을 논의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5층 회의실에서 송경호 지회장 등 전북지회 지역 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달라진 전북교육과 늘봄학교 정책, 불법과의 근절 대책 등 교육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학원총연합회 전북지회는 이날 지역 교육 발전과 학생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300만 원의 사랑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손경호 지회장은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원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학원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직업계고 학생들 취업률 높인다

개인별 취업로드맵 개발·보급
120개 프로그램 개발 현장 활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취업로드맵’을 개발·보급한다고 밝혔다.

학생 개개인의 진로 목표와 역량에 맞춰 단계별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취업로드맵은 도내 직업계고에 보급돼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취업로드맵 개발을 위해 지난 1월 직업계고 교감, 취업부장 등 취업 전문가 19명으로 TF팀을 꾸려 6차례에 걸친 개발 및 검토 과정을 거쳐 3대 핵심역량과 120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취업로드맵에는 1학년 진로설정, 2학년 자기계발, 3학년 실천취업으로 이루어진 핵심역량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취업서류 작성 △찾아가는 취업컨설팅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실질적인 취업 준비가 가능하도록 120개의 단계

별 프로그램이 담겼다.

이들 프로그램은 전문가 취업컨설팅단과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이 협력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개발된 취업로드맵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취업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로드맵이 직업계고 학생들이 단계별로 취업 준비를 하고, 맞춤형 교육과 실습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 정미경·임란영 씨, 생태학회 학술대회 수상

국립군산대학교 생명과학과 정미경 학생(석사1)과 임란영 연구원(농생명융합기술센터)이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기초과학연구원(IBS) 과학문화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생태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발표논문상과 미래생태학자상을 수상했다.

이번 한국생태학회 학술발표대회는 전국에서 약 280여명의 생태학 연구자가 참여한 ‘인류세시대의 생태학’이라는 주제로 기후위기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생태학자들의 노력과 다양한 연구에 대한 학술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정미경 학생은 ‘수생식물 생활형에 따른 잎의 기능적 특성 비교’라는 주제를 포스터로 발표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본 연구는 수생식물을 생활형별로 구분하고, 잎의 기능적 특성을 형태적, 화학적으로 분석하여 식물의 적응 전략과 군집 내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식물형질DB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성과 ‘빛났다’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이 지난달 28일 열린 제18기 수료식 및 제19기 발대식에서 우수한 운영과 교육성과를 인정받아 다수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주목받았다.

한국무역협회 주관인 이날 행사에서 전북대 GTEP사업단은 차별화된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단으로서의 입지

를 확고히 했다.

특히 조수영 지원팀장은 사업단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학생 부문에서도 이지수 학생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김태형 학생이 한국무역협회장상을 수상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군산동고, 에너지 신산업 인재양성 ‘한마음’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와 군산동고등학교(교장 김수영)가 지역의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일 군산동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조현철 입학처장과 김수영 교장을 비롯해 양교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체결 내용으로는 △인적 물적 지원의 상호 교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과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협력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협의와 협력 △일반고-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협의 및 실무교류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등이다.

조현철 입학처장은 “에너지 신산업의 최신 동향과 기술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군산동고에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직업 역량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해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고창부안축협 한우명품관

축산인의 실익도모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고창부안축협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한우명품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1길 13
예약문의 : 063-563-6001

부안한우명품관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85-1
예약문의 : 063-581-2349

군산시, 양성평등 문화 확산 기금 지원사업 참여

군산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2025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자 매년 추진해왔다.

공모 분야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사업 ▲다문화 및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 증진사업 등이다. 올해 사업비는 총 3,290만 원으로 사업 내용과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사업추진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군산시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신청서는 군산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063-454-321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서남권추모공원 청명·한식 때 화장업무 확대

정읍시가 청명·한식 기간 동안 개장 유골 화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서남권 추모공원의 화장 업무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하루 최대 화장 가능 건수를 기존 8건에서 15건으로 늘려 유족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청명과 한식은 조상의 묘를 순보거나 이장하는 전통이 이어지는 시기로, 매년 이 시기에는 개장 유골 화장 수요가 평소보다 크게 증가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장제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일시적인 확대 운영을 결정했다.

개장 유골을 화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묘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개장 신고를 하고, 개장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화장 예약을 해야 한다. 동 지역은 시청 노인장애인과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에서 '화장예약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나 전화 접수는 불가하며, 화장 예정일 기준 15일 전 0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접수 시에는 개장 신고 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

군산시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탈세 방지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를 오는 30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에 따라 진행된다.

대상은 작년 국토부 상시모니터링 결과 실거래 신고 4,995건 중 정밀 검증 대상으로 통보된 17건으로 부동산 업·다운 계약, 편별 및 불법행위, 매수인의 자금조달 계획 의심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

시는 소명서 및 계약서, 통장 이체 내역 등 대금 지급 증빙서류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제출받아 정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만약 거짓 신고가 적발되면,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편별 증여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침수피해 '제로화' 총력

29개 재해·상승지역 해소

1,435억규모 설계업체선정

군산시가 작년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성산면, 나포면 일원)을 비롯한 29개 소재해복구사업과 상승 침수지역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재해 예방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 증가 방지 △저지대 피해 제로화 △배수불량으로 인한 상승 침수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된다.

먼저 시는 이달 안에 총사업비 1,435억 원 규모의 사업 3건을 위한 설계업체 선정에 나선다.

세부적으로는 문화동·나운동·신평동·경암동 일원에 ▲우수저류조(규모 25,000㎡)와 우수저류 시설(규모 23,000㎡) 설치 ▲빗물을 흘려보내는 우수관로(길이 2,100m) 개선 ▲사방시설 3개소와 펌프장 증설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이어 5월에는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

권 종합 정비사업' 착공과 지난해 공모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신평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나운동 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경포전 지구 자연 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 3건에 대한 설계용역이 본격 진행된다.

군산시는 이상기후로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난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연중 운영하면서, 침수피해 및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한 군산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치유농업 일번지 힘찬 발걸음

1억4,000만원예산투입

치유농업 사업 본격 추진

익산시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시민의 심신 건강을 돌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치유농업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유농장 육성 △사회서비스기관 연계 치유 프로그램 △농촌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등 3개 분야의 치유농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치유농업'은 농작업, 원예, 동물 교감 등 농업 활동과 농촌 경관을 통해 정서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건강 회복을 유도하는 새로운 농업 분야다. 건강 증진과 사회적 비용 절감, 농촌 소득 창출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 농업에 치유를 더하다…치유농장 육성

시는 2022년부터 치유농장 육성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3억 원을 확보해 치유농업의 기반을 다져왔다. 시의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들의정원(원예활동) △플로리움(허브디톡스) △왕궁국 파머스(밀새싹) 등 3곳의 치유농장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원예·허브·밀새싹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개발된 각 농장



치유농장 플로리움에서 허브디톡스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사진=익산시>

의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 안정과 건강 증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사회서비스 기관 연계, 맞춤형 치유 확산

또한 치유농업은 복지와 농업을 연결하는 '농업기반 사회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들의정원 △플로리움 △산들강웅포마을 △미리산늘품치유농장 등 치유농장 4개소가 참여했다.

◆ 농촌관광과 접목한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

시는 치유농업을 체험형 관광 콘텐츠

로도 활용하기 위해 '농촌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도 병행한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상품 개발과 플랫폼 연계 판매를 통해 치유농업의 경제적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더불어 익산시는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농업인대학에서 치유농업 과정을 운영하고, 전북 유일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인 전주주기전대와 협력해 지역 농업인들의 2급 치유농업사 취득도 지원해왔다.

시는 치유농업을 매개로 도시와 농촌을 잇는 건강한 순환구조를 만들고, 시민이 함께 누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외국인 근로자 진료 혜택 강화

희년의료공제회와 맞손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희년의료공제회'와 손잡고, 공제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내에서 의료공제회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희년의료공제회(회장 이문식) 및 정읍아산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

한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희년의료공제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민간 의료보험 제도다. 협력 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 100%가 적용되며, 진료비와 약제비는 영수증을 공제회에 제출하면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비 등 추가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의료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희년의료공제회비를 직접 지원하며, 진료 편의를 높이기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진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이번 의료복지 지원이 외국인 근로자 유치와 정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논콩 재배 확대 지원 본격화

지원금 ha당 최대 4백만 원

익산시가 벼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농가소득을 향상하기 위해 논콩 재배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논 타작물 전환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콩을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논콩 재배 면적을 현재 919ha에서 1,500ha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논콩 재배 확대 추진단을 구성하고, 직불금 지원, 교육·기술지도, 농기계 임대, 병해충 방제, 종자 확보 등 정책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시는 농가·공무원·전문가로 구성된 '논콩 재배 확대 추진단'을 운영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와 들녘별경영체를 육성하는 등 콩 전문 재배 조직화를 통해 재배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인다.

또 시는 논콩 재배 농가에 초기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해 현금 지원도 진행한다. 정부와 협력해 논콩 재배 시 ha당 최대 200만 원, 동계작물 밀과 연계 재배 시 ha당 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콩 유통·가공시설 설치와 농가 컨설팅을 위한 33억 원 규모(교육 11개소, 시설장비 6개소)의 전략작물산업화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밀 농업 기반 '밀·콩 작부체계 보급사업'(국비 1억 원), 기계화장비 보급(국비 2억 원), 병해충 방제(시비 8,700만 원), 종합관리 시범사업(도비 1억 원)도 함께 추진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부터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농업인대학 논콩 전문 CEO 과정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류숙희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논콩 재배는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정책·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고품질 논콩 주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산불 피해 지역 '사랑의 밥차'

청송군에 구호물품도 전달

시청 직원 성금 2,500만 원

익산시가 사랑의 밥차를 끌고 경북 청송군을 찾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한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2일 청송군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재민을 위한 '사랑의 밥차' 급식 봉사에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이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익산시는 구호 텐트를 비롯해 쌀, 생수, 라면 등 긴급 생필품을 전달하며 피해 주민을 위로했다.

정현율 시장은 이들을 만난 자리

에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의 상실감과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지역을 뛰어넘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작지만 따뜻한 손길을 전하러 왔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이번 봉사활동에 앞서 성금 모금과 구호물품 지원을 활발히 이어온 바 있다. 우선 시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2,500만 원을 기탁했다. 또한 시민들의 기탁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송학동 지역 단체 200만 원, 여산면 주민 130만 원, 동산동 지역 단체 120만 원, 평화동 주민 100만 원 등 익산시민의 따뜻한 마음이 영남에 닿았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임산물체험단지, 봄꽃과 향기로운 힐링

정읍 임산물체험단지의 향기온실이 형형색색 봄꽃으로 채워지며 시민과 관광객에게 따뜻한 힐링 공간으로 다가가고 있다.

정읍시는 2일 봄을 맞아 임산물체험단지 내 향기온실에 8종의 봄꽃을 새롭게 식재하고 일반에 개방했다. 식재된 꽃은 거베라, 가자니아, 석죽, 애니시다, 루피너스 등으로 봄의 정취를 가득 담고 있다.

기존에 식재돼 있던 금목서, 은목서, 로즈마리 등 향기로운 식물들과도 자

연스럽게 어우러져, 향기온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은은한 향이 방문객을 감싼다.

또한 체험단지 내 카페 시설인 '차향다원'에서는 임산물로 만든 차와 음료를 제공하고 있어 향기로운 꽃길 산책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향기온실 관람은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노점 행위 정지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군산시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역전종합시장 새벽장 노점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실시 중인 이번 단속은 안전한 학교 진입을 위한 행태 정지 조치로, 노점 조기 철수 유도도 병행하고 있다.

그동안 역전종합시장 인접 도로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 중심지이지만 새벽에 형성되는 노점으로 통행이 불편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특히 주변 아파트 단지 증가로 주변 통학로를 대상

으로 학부모 사이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도 단속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현재는 약 120명의 중앙초등학교와 영광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점포의 인도 점용 행위를 정리하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백운초 안전건설국장은 "상권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봄철 산불 예방 집중 단속

익산시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 및 단속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24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상황해지 시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대응에 나섰다.

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총 130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비상 대기 조직하고, 산불취약지 순찰, 마을 방송,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입산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수칙과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 소양면 복합체육시설 하반기 착공

군수 주재 주민설명회 열어 사업부지 80% 확보 순항

2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소양행정복지센터에서 소양면 이장·부녀회장단,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소양면 복합체육시설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해당 사업은 완주군이 지난 2020년 8월 21일에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고시한 사업으로,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사업비 총 110억 원을 투입해 4만 9,644㎡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파크골프장, 다목적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 군수는 소양 복합체육시설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적기 추진을 약속했다.

현재 군은 올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2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소양행정복지센터에서 소양면 이장·부녀회장단,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소양면 복합체육시설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완주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환경청과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이며, 사업부지 토지도 80% 이상을 확보하는 등 토지수용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임야 원형지를 보전에 돌레길을 설치해 주민 건강을 증진하고, 충분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면 소재지의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가 오는 21일까지 ‘제52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5개 부문 13개 종목의 참가자 접수를 받는다. <사진=남원시>

제 52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접수

5개 부문 13개 종목 퓨전·창작 11일 마감

판소리 동편제의 발상지이자 춘향가, 흥보가의 배경지로 수많은 명인·명창을 배출한 남원에서 ‘제52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에 참가할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다. 경연은 5개 부문 13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판소리(명창부, 일반부, 초·중·고 청소년부, 신인 및 외국인부) △무용(일반부, 청소년부) △기악현악(일반부, 청소년부) △퓨전·창작국악 부문이다.

참가 신청접수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1일까지로, 퓨전·창작국악은 온라인 사전 검토를 위해 오는 11일에 접수가 먼저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95회 춘향제 누리집 또는 남원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52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경연 기간은 신인 및 외국인이 참여하는 신인대전과 퓨전창작국악

이 펼쳐지는 오는 5월 2일 남원 심수정 특설무대 일정을 시작으로 5월 3일에는 남원아트센터에서 청소년부 경연이 진행되며 5월 4일은 일반부와 명창부 예선이 펼쳐진다. 마지막 날인 5월 5일에는 일반부 본선 및 대통령상을 가리는 판소리 명창부 본선 경연이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판소리 명창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원과 영예의 대통령령상이 수여되며, 일반부의 판소리, 무용, 기악현악, 기악현악·병창 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퓨전·창작국악 부문에서는 대상 수상팀에게 국회의장상이 수여되며, 판소리 고등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된다. 한편 이번 대회 수상자들의 축하공연이 제95회 춘향제 기간인 5월 6일 남원 심수정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4월부터 운영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드론레이싱 중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 참여형 드론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드론레이저스포츠 시대를 맞아 본 교육은 남원시가 주최하고, 드론레이싱 전문기업 디에프엘 코퍼레이션(DFL Corporation)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반을 맡아 진행한다. 교육은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드론 스포츠 종목인 ‘드론레이싱’으로 선정했으며, 직접 드론을 조정하는 실습 중심으로 조종의 기본 원리와 경기 규칙 등 이론 수업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비 전액 무료이며, 본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는 드론기체 증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4종 자격증, 교육 수료증, 남원 국제드론제전 참가기회, 우수 교육생 상장 등의 특전을 얻을 수 있다.

교육일정은 기수별로 2주 과정으로 평일만 오전/오후/야간반으로 주 2회 운영되며 월·수·화, 목·금반으로 구성된다. 주말반은 토요일 종일반으로 주 1회 운영한다. 각 반의 인원은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1기는 4월 18일까지 모집, 4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된다. 이후에도 상시 모집을 통해 10월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체나 기관에서 방문 교육을 희망할 경우, 교육장비를 갖춘 강사가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에듀이름 김민경 대표 초청 순창군, 공무원 친절교육

순창군이 지난 1일 공무원들의 민원 대응 능력 향상과 주민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순창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 소속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에듀이름 컨설팅의 김민경 대표가 강사로 나섰으며, 민원의 종류, 민원 대응 방법, 특히 민원에 대한 대처 방법과 자세 등이 주를 이뤘다.

이날 김 강사는 공무원의 친절 서비스가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친절한 응대 방법,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감성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김 강사는 욕설이나 협박 등 특이 민원 발생시 증거수집이나 상황보고 등 이성적 대응을 통해 과거 소극적 민원 대응방식에서 탈피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형식적인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퀴즈나 직접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교육 참여를 이끌어내고 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집중력을 높였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아동 눈높이 맞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운영

완주군 아동읍부드퍼센사무소가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권리를 존중받고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본격 운영한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아동권리, 환경, 성, 학교폭력 예방, 문화 다양성, 노동인권 등 9개 분야에 대해 아동의 연령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완주군 아동읍부드퍼센사무소는 2025~2028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아동권리교육 강사를 자체 양성하고, 지역의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아동권리 교육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아동권리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18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아동청소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아동읍부드퍼센사무소는 전국 최초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아동권리를 구체화하는 아동권리 대변기관이다.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현안 사업장 현장방문 ‘체감 행정’

11개 읍면 영농 준비 현장 사업장 28개소 잇단 방문

최영일 순창군수가 2일 관내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영농 준비 현장과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갔다.

이번 현장 방문은 2일부터 10일까지 11개 읍면을 모두 방문하는 일정으로, 이 기간 동안 영농 준비 현장과 주요 사업장 총 28개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최 군수는 군청 설명회 당시 건의된 동계면 감춘저수지 소하천 방문을 시작으로 수장소하천과 이동소하천 정비사업을 차례로 방문해 각 현장의 사업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청취했다.

이 중 감춘저수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범람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면 보강과 소하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최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용결산을 방문해 섬진강 장군목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용결산 자연휴양림



최영일 순창군수가 2일 관내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영농 준비 현장과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갔다. <사진=순창군>

기반시설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관광객 편의를 위한 공중화장실과 다목적 광장 조성 등 시설 확충 상태를 점검하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처리 등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한 인계면에서는 치유농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실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현장을 차례로 둘러봤다.

각 사업 현장에서 최 군수는 사업의

필요성과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긴밀히 의견을 나눴다. 특히 치유농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현장에서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치유농업 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영일 군수는 “직접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군민에 귀 기울여,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의회, 주민공감대 형성 없는 통합 의미 없다

유익의 의장 반대 입장 표명

완주군의회(의장 유익의)가 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대위)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공감대를 전제로 하는 전주·완주 통합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익의 의장은 시대위의 의결사항과 관련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밝힌 태도는 완주군민간의 싸움을 불어넣고 것 같이, 주민공감대 형성이 없는 상태의 현재 통합 논의는 의미가 없다”

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대위의 보도자료 배포 이전 전북특자도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유 의장은 이번 통합논의가 마치 주민주도로 이뤄지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상 관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북도와 전주시의 행태는 완주군민간의 싸움을 불어넣고 뒷집치고 구경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낙우회, 지역 시설아동에 1년간 우유 지원



완주낙우회(회장 이준영)가 완주군 관내 시설아동들의 건강간 성장을 돕기 위해 1년간 지속적으로 우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2일 완주낙우회는 군청을 찾아 전달식을 갖고, 1년간 900만 원 상당의 우유 지원을 약속했다. 전달식에는 유

희태 완주군수, 이준영 완주낙우회장, 회원, 아동시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우유 지원은 오랫동안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한 이웃들의 관심과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완주낙우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나눔실천 의지로 마련됐다. 관내 20여 가구의 낙농가로 구성된 완주낙우회는 지난 2018년부터 심심일반 급금을 모아 관내 취약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년 700만 원의 우유를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지원금을 확대해 아동들에게도 우유와 발효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범씨 키다리병 방제 온탕소독기 설치 운영

순창군이 범씨로 전염되는 키다리병 등 벼해충 예방을 위해 오는 5월까지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온탕소독기 21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범씨 온탕소독은 벼 종자를 60℃의 물에 10분간 잠지자 소독한 후 찬물에 식히고 싹을 틔워 파종상자에 옮기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키다리병, 벼잎선충, 도열병, 세균성 벼알마름병 등 범씨 표면에 붙은 병원균을 제거하는 데 효

과적이며, 범씨 발아에도 지장을 주지 않아 친환경 벼농사 재배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온탕소독을 원하는 농가는 사전에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예약한 후 원하는 날짜에 종자를 가져와 소독하면 된다. 지난해 순창군은 706농가가 참여해 총 120톤의 범씨를 온탕소독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서울 국제관광박람회서 지역 관광지 홍보

치유관광지 중점 홍보 SNS 이벤트 등 운영

완주군이 최근 4일간 서울 SETEC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완주 관광지를 적극 홍보했다.

‘여행을 PLAY, 지역을 REPLAY’라는 테마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이 주관했다.

군은 박람회를 통해 2025~2026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오성한옥마을과 웰니스 관광지 아원고택, 구이안덕

건강힐링체험마을, 봉강요 등 치유관광지를 중점 홍보했다.

또한 ‘전북 특별한 관광지 완주 관광홍보 영상’을 상영하며, 감성여행도시 완주의 관광 매력을 적극 홍보했다.

이외에도 ‘완주여행의 모든 것’ 블로그 이웃추가, 인스타그램 팔로워 참여 이벤트, 재미있는 럭키복권 이벤트 등을 운영하며 관광객의 참여를 이끌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는 감성여행도시로서 다양한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품고 있다”며 “BTS 힐링 성지이자 전혜의 자연 친화적 관광마을인 오성



한옥마을을 비롯해 불거리, 체험거리가 가득한 완주에서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전북 뮤지션의 꿈을 펼칠 기회! 레드콘 뮤지션 6개팀 모집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김성규)은 지역 대중음악 활성화를 위해 전북 레드콘 음악창작소(이하 음악창작소)에서 2025년 '레드콘 뮤지션'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6팀을 선발하며 신인 뮤지션 3팀과 기성 뮤지션 3팀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신인 뮤지션은 전국 음악창작소 지원 이력이 없는 개인 및 팀을 대상으로 하며, 기성 뮤지션은 전북 레드콘 음악창작소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개인 및 팀이다.

선정된 뮤지션들에게는 음반 및 뮤직비디오 제작, 공연 참가 등 다양한 창작지원이 이루어지며, 음악 산업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류 접수는 오는 14일(월)부터 18일(금) 17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모집 요강은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누리집(www.jc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근 기자



제95회 춘향제 맞이 장애인 보행환경 점검 추진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와 남원시 주민복지과는 2일 제45회 장애인의 날 및 제95회 춘향제를 맞아 축제 구간의 장애인 보행환경을 체험하고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춘향제 축제 시 유동인구가 많은 사랑의 광장-승월교-광한루원 구간의 장애인 보행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했으며, 남원시 4명(행정복지국장 외 3), 장애인분과 위원 13명, 장애인협회 회원 4명이 참석하여 시각장애 체험, 휠체어 이동 체험을 통해 장애인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위원들은 시각장애인의 흰 지팡이 보행과 전동보장구 및 휠체어 이동 시, 인도, 횡단보도 등을 체험 및 점검했으며, 특히 승월교-광한루원 구간, 춘향교-승사교 구간을 중점적으로 점검, 체험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이마트 전주점, 전주희망더드림 장학금 전달

매년 1000만원씩 기탁 전주소상공인지녀후원

(썬이마트 전주점(점장 최경무))이 전주지역 소상공인지녀를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후원하며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실천했다.

전주시와 이마트 전주점은 2일 전주시장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경무 썬이마트 전주점장,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지녀를 위한 '전주 희망더드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전주시와 (썬이마

트 전주점,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이 지난 2023년 8월 체결한 '지역상생 협력사업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썬이마트 전주점이 올해 전주지역 소상공인지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올해 기부된 장학금은 전주시복지재단을 통해 전주지역 소상공인지녀 20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수여될 예정이다.

최경무 썬이마트 전주점장은 이날 "약소하지만 이번 장학금 전달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지녀들이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학창 시절을 영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썬이마트 전주점이 전주지역 소상공인지녀를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후원하며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실천했다 <사진=이마트 전주점>

정읍사예술회관에서 KBS '국악한마당' 열린다

박애리·김용우 출연 5일 오후 4시 선착순 입장

정읍시가 다채로운 국악의 매력을 시민들과 함께 나눈다. 오는 5일 오후 4시, 정읍사예술회관에서 KBS '국악한마당' 공개 녹화 공연이 열린다.

KBS 국악한마당은 1990년 첫 방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통 국악의 맥을 이어온 국내 최장수 국악

프로그램이다. 명품 무대를 선보이며 국악인들에게는 최고의 무대이자, 대중에게는 우리 음악을 친근하게 전해주는 장구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정읍 공연에는 국악인 박애리, 김용우, 김주리, 그리고 독창적인 퍼포먼스로 주목받는 악단광칠 등 국내 최정상 국악인들이 출연해 국악의 진수를 선보인다. 정읍시립 국악단도 함께 무대에 올라 풍성한

불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전 좌석 무료로 선착순 입장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공연이 전통 국악을 보다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연은 5월 10일 낮 12시 10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하루 전 KBS 1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완주군여성단체, 산불 피해 구호물품 전달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채미화)가 경북 영덕 산불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영덕군청에 화장지, 물티슈, 수건, 마스크 등 20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물품은 여성단체에서 실시했던 수익금을 활용했다.

채미화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는 주민들

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피해 주민들의 생계 안정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는 1972년 창립된 이후 여성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현재 13개 단체 1,800여 명의 회원들이 나눔 봉사,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역발전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정읍 새마을부녀회, 산불 이재민에 따뜻한 손길

지난달 25일 고창에서 발생한 산불이 정읍 소성면 금동마을까지 번지며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읍시 새마을 부녀회의 따뜻한 연대와 나눔이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있다.

정읍시 새마을회(회장 이경연)의 식재료 지원을 시작으로, 소성면 새마을 부녀회(회장 윤영순)는 재해 발생 첫날부터 임시거주시설에 긴급 투입돼 따뜻한 식사 제공에 나섰다.

이들은 하루 세 끼, 30인분의 식사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며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윤영순 회장은 딸기 2박스와 성금 20만원을 기탁했다. 태인면 새마을 부녀회원들도 음료와 밀반찬, 성금 20만원을 후원하며 힘을 보탰다. 정읍시 새마을 부녀회는 주방가구와 텔레비전 장식장 등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도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중앙고 청소년적십자단원, 다문화가정 위한 응급처치달력 제작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군산 중앙고등학교 청소년적십자(RCY) 단원 30명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응급처치 달력을 제작하여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도교사와 단원들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이 안내된 달력 900부를 제작하여 군산가족센터, 전주시 다문화지원센터, 사단법인 착한벚꽃 등 다문화가정 지원기관에 전달했다.

달력에는 한국어 이해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설명을 추가했고, 군산경찰서 학교경찰관과 협력하여 피싱범죄, 담배이크 등 범죄 예방 관련 정보도 포함했다.

이성인 군산중앙고등학교 교장은 "청소년적십자(RCY) 단원들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동산동 통장협의회 등 6개 단체, 영남지역 산불 피해 성금 전달

익산시 동산동이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동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6개 단체가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120만 원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성금 기탁에 참여한 단체는 통장협의회(회장 이명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극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심현무) △부녀회(회장 전매자) △자율방범대(대장 정창호) △발전회(회장 임정희)다.

6개 단체 회원들은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마련했다.

이명숙 회장은 "예기치 못한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께 주민들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극명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봄철 주의 사항



알레르기 주의

봄에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알레르기증상이 있는 친구들은 미스크를 꼭 착용 하세요
코와목이 간지럽다면 손으로 만지지 말고 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야외 활동 주의

햇볕이 강할 수 있으니 외출 할때 모자를 쓰고 선크림을 바르세요
산책할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한 장소에서만 놀아요



미세먼지 주의

미세먼지가 심한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꼭 외출을 한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 하세요, 외출후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코와 목도 물로 헹구 주세요



기온변화 주의

아침과저녁으로 쌀쌀할수 있으니 얇은 겉옷을 챙겨입어요. 김기에 걸리지 않도록 실내에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요

〈칼럼〉



“산불예방, AI가 답이다”

김원

스피어AX 호남지사장

올봄 전국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한 인명과 시설 산림 등의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이다. 1일 현재 사망자 30여명을 비롯 7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산불 영향 구역은 4만8천ha로 서울 전체 면적(6만ha)의 80%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남·북도 등 전국 지자체들은 앞다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산불재난에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지난 31일 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울산과 경남·북 산불대응 10차 회의를 개최, 산불수습 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청취 피해수습·복구계획 등을 논의했다. 산불진화가 완료된 뒤 사후 수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는 4월에도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청명과 한식 등 임

산객이 많아지는 시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레션 안되겠지만, 언제든지 산불발생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문과 방송이 독자와 시청자를 상대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산불발생은 그치지 않고 있다. 산불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발생후 최단시간 내에 초동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동원되는 것이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산불조기 경보시스템이다. AI 관제를 통해 산불발생 전 연기를 초기에 탐지하고 빠르게 대응한다. 주변에서 산불발생을 확인하고 119에 전화를 걸기 7~10분 가량 먼저 산불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산불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피해규모를 결정짓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7분 가량의 조기경보는 대형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느냐, 못막느냐가 판가름나는 시간이다. 인명과 재산 피해 등을 막을 분수령인 셈이다. 지금까지 초기 탐지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큰 피해를 방지한 경우는 수없이 많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경북 의성의 경우, CCTV 카메라 화각(火角)에서 벗어난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초기 탐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례는 AI 기술이 화재발생을 감지할 수 있으나 인프라의 미비 때문에 결국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 초기 탐지와 신속한 대응을 실현하려면 더 많은 산불 감시 CCTV 설치와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취약 지점과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더 강력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AI 기술은 아직 초보 단계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법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산불 감시를 위한 CCTV 설치와 같은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AI기술의 사각이 없도록 촘촘하게 더 넓은 범위를 관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불예방에 투자를 소홀히 했다가 수천 수만배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번 피해는 울산과 경남·북 지역에 컸지만,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도 산불 감시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생명과 재산,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막대한 복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과 대응 시스템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I기술로 산불예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를 희망한다.

사설

도내 대미 수출기업, 美 관세 부과 대비해야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더욱 강화되면서 전북 도내 자동차 부품 수출 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와 주요 부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이 이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러한 대책이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전북도는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을 순차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최근에는 정읍의 전장부품 전문기업인 '아진전자부품'에서 간담회를 열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도내 대미 수출 부품기업 29개 사의 연간 수출액이 9천만 달러에 달하는 만큼, 이번 관세 부가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물량 감소와 생산원가 상승 등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전북도가 마련하고 있는 맞춤형 지원책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외 시장 다변화 지원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럽, 동남아, 중동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출 상담회 개최, 해외 바이어 연결, 현지 법인 설립 등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관세 인상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려면 기술력 제고가 필수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

단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중장기정부와의 공조도 강화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 예정인 '자동차산업 비상대책 방안'과 연계해 도내 기업들이 충분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각종 지원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 금융 및 세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강화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완성차 및 부품기업 간 간담회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소통 채널을 정례화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북도의 발 빠른 대응은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지자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전북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독자광장

죽음을 강요하는 관행,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은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으로 확산되어 큰 피해를 남겼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은 더딘 진화에 고통스러웠고,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지역 주민은 안타까움에 힘겨웠다. 더욱이 이번 산불은 자연재해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인재(人災)로 볼 수밖에 없는 사망 사고로 인해 더욱 가슴 아픈 비극으로 남았다.

장영근 소속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4명은 산불 진화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임용 4년 차 녹지직 공무원 강씨는 당직이 아니었으나 동료를 위해 당직을 바꿨고 산불진화대원을 인솔해 현장으로 출동했다가 돌아오지 못했고, 함께 변을 당한 산불진화대원 3명은 모두 60세 이상 고령으로 예방진화대였지만 긴급한 상황에 방화복과 기본 장비만을 갖춘 채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들의 평소 임무는 산불 감시와 같은 예방 활동이며, 산불 발생 시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부족한 인원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미명 아래, 이들은 사실상 죽음의 위험에 내몰렸다.

이번 산불의 이동속도가 시간당 8.2km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속초·고성 산불의 5.2km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국내 산불 사상 최고 속도라고 한다. 가늠치 못할 위력이다.

안타까운 점은 이번 산불 이후 일각에서 나오는 지자체 소속 담당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의 전문성이나 훈련 부족을 문제 삼는 목소리다. 정말일까?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제 그것들이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면 관련 교육과 훈련의 강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의 구조적 원인 분석 없이 전문성이나 훈련 부족을 논하는 함정도 함께 경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

과 비용을 감수해야만 했던 대형 참사들의 경험에 있다. 그런 비극에서 봐 왔듯이 무고한 희생의 원인은 교육이나 훈련 부족보다는 관행이나 시스템의 부재인 경우가 더 많았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투입해야 한다는 관행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잔혹하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 개인의 무고한 희생을 미덕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당연히 이번 사고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숭고한 희생은 애도해야 하고 기억되어야 하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일하라는 관행을 결코 더 이상 영웅담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이런 관행은 앞으로도 계속 무책임 뒤에 숨은 채 침묵하며 희생을 방조할 것이다. 발생할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도 절대 도움되지 않는다. 이제 필요한 건 사고로부터 교훈을 얻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비하는 것이다.

산불 발생 시 실시간 기상, 산

불 발생 지역의 지형 분석, 불길 확산 예측을 통해 상황에 맞는 인력과 자원의 투입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AI와 드론을 활용해 진화 불가능 지역을 사전에 식별하고, 해당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인력 투입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현재 산불 대응은 지자체, 산림청, 소방청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유기적 협력 체계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중앙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해 모든 인력과 장비를 일원화해 관리할 필요도 있다.

이번 사고는 “일단 진화하라”는 압박 때문에 안전이 무시된 결과이다. 그래서 인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갈퀴와 등짐펌프를 든 사람이 시간당 8km로 번지는 불길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 공직자가 이전에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번 사고가 단순한 희생의 서사로 끝나지 않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원

문화재열전



실상사 극락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유적건조물, 불전
- 지정일- 1974년 9월 27일
- 시대- 조선시대
- 소재지-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4월 3일 목요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완산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진안지국 010-2439-1721	장수지국 010-8626-6049	완주지국 010-3672-0308
정읍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화재 예방

올바른 소화기 사용방법



불이난 곳으로 소화기를 옮긴후 안전핀을 뽑아줍니다



노즐을 펴서 불이 난 방향으로 고정 합니다



손잡이를 힘껏 움켜잡니다



노즐을 잡은 상태로 화재가 발생한 곳에 골고루 분사해줍니다

지평선 너머로 펼쳐지는 김제 전북권 4대 도시 도약 속도낸다

특수모빌리티 신산업 육성·첨단국가산단 유치·복합산단 개발
정주인구기반 강화·생활인구 확대·청년 외국인지원정책 체계 구축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올해 직제개편을 통해 신설한 성장전략실이 특수모빌리티 신산업 육성과 정주인기 기반 강화 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성장전략실은 김제의 산업·경제·인구조 혁신을 이끌며 전북권 4대 도시 도약을 위한 핵심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이에 본보는 성장전략실의 주요 단위 사업과 세부 추진전략을 분석해, 김제의 미래첨단 선도 도시로서 힘찬 비상을 이어나가는 성장 전략을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드론배송 실증시험도시 선정, 미래 모빌리티 등 신전략산업 발굴 및 글로벌 강소도시 도약의 견고한 기반 구축

시는 지역 산업 생태계의 다각화 및 혁신적 성장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AI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지능형 농기계, 특수목적용 첨단 건설기계 등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북 특장차산업 클러스터 협의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폴리텍대 전북캠퍼스 등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백구 특장차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래 특장 차세대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 특장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 특장차 전문 특화단지를 보유한 입지적 장점 극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유일 특장차 전문 특화단지 기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시는 특장차 산업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초격차 경쟁

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김제시 백구 특장차클러스터에는 특장차 관련 차체 및 부품 생산기업 30여 개와 특장자기인증센터,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집적화되어 있어 연구·생산·인증·검사가 원스톱으로 가능하며 특히 백구 특장자기인증센터는 인증검사와 성능검사 두가지가 모두 가능하여 전국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능형 농업로봇 국가첨단과학기술단지 유치 조성 및 지역활력타운 추진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시는 국가첨단과학기술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구)김제공항부지(약 240만㎡)를 적극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리청인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지 분할매입 및 위탁관리를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 중이다.

세만금배후도시인 김제시에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조성되면 군산(이차전지), 전주(탄소), 익산(식품), 완주(수소) 등과 더불어 전북 서부권 내 국가산업단지 클러스터가 구축됨으로써 전북 지역발전의 신성장 핵심동력으로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보 생활권내 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역활력타운을 지평선 제2산업단지 주거용지 내에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제시,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박차

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생활인구 확대 등 다각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주요 정책으로 ▲「지평선생명도시

시 김제시민제도」운영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저출산·고령사회 인식개선 사업 등이 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하는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지역 내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소 이전 없이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시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과 지역 가맹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유도해 생활인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해외 유학생 유치·교육·일자리 연계 3트랙 전략으로 산업체 수요 대응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는 김제형 외국 인정제 발굴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정책팀을 신설했다.

'우수 외국인 유치·교육·일자리 연계 3트랙(Track) 구축'을 목표로, 지역 폴리텍대학과 협력해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산·관·학 연계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기업 취업과 정주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제시 외국인 주민 수는 4,750명으로, 총인구 대비 6%를 차지하며 도내에서 세 번째로 많다. 이에 따라 ▲우수 외국인 유치·교육·일자리 연계 3트랙 전략 추진, ▲외국인 정책 중·단기 과제 발굴, ▲민·관·정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외국인 지원 국가예산 사업 발굴, ▲외국인 근로자 교육지원센터 개소, ▲지역 기반 비자 발급 지원금 지급 등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펼쳐라 청년의 꿈, 키워라 김제에서'

김제시는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주도 커뮤니티 활동으로 지역 청년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청년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가에게 사업화 지원금 및 성장지원금 각 1,5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129명의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청년 창업도시 1번지'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청년단체가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청년 특성에 맞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업에 연계시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착할 수 있도록 김제형 청년정책에 맞추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최근 첨단산업의 발전과 변화의 추세에 따라 성장전략실을 중심으로 우리시의 산업과 인구, 청년정책에 혁신을 가속화하며, 전북권 핵심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와 더불어, 전북권 4대 도시로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바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긍정 마인드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을 확신한다"며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핵심소재 기업

OCI는 기초화학,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고,
사회에 가치를 더하는 글로벌 핵심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